

女性 不妊症의 問診에 關한 研究

尹 鍾 元 · 李 泰 均*

I. 緒 論

女性 不妊症이란 妊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原發性 不妊症과 續發性 不妊症으로 대별된다.

原發性 不妊症이란 避妊하지 않고 正常的인 性生活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지나도록 妊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續發性 不妊症이란 妊娠經驗이 있는 女性이 流産 또는 分娩 후 無月經이 끝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도 妊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不妊症의 頻度는 약 10~15%이고, 原發性과 續發性의 比率은 6:4 정도이다.”

따라서 女性 不妊症 患者를 診療하는데 있어서는 婦人科 診斷의 專門性이 더욱 必要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正確한 辨證에 의한 不妊症 患者의 治療效率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著者는 不妊症의 問

診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諸 文獻에 의거하여 檢討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韓醫學의 諸 文獻에서는 女性 不妊症을 “求嗣” “種子” “嗣育” “求子” 등의 部門에서 具體的으로 論述하고 있는데, 妊娠의 可能與否를 주로 月經의 樣相에 基準하여 왔다.” 女性 不妊症 患者에 있어 月經의 樣相에 관한 事項은 가장 基本的이므로 이에 대한 檢證은 반드시 必要하다. 그러나 女性 不妊症 患者에 있어서 이러한 月經의 異常을 招來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³⁾ 경우에 따라서는 患者의 自覺症狀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女性 不妊症 患者를 診療하는데 있어서는 婦人科 診斷의 專門性이 더욱 必要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正確한 辨證에 의한 不妊症 患者의 治療效率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1) 大韓產婦人科學會: 產婦人科學, 서울, 칼빈書籍, 1991, pp.389~390.

2)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子嗣篇, 서울, 大成文化社, 1982, 下卷21, pp. 763~764

每見婦人之無子者, 其經必或前, 或後, 或多, 或少, 或將行作痛, 或行後痛, 或紫, 或黑, 或淡, 或凝而不調, 不調則血氣畢爭, 不能成孕.

“不妊女性의 月經은 반드시 或前, 或後, 或多, 或少하고, 將行作痛하거나 行後作痛한다. 或紫, 或黑, 或淡, 或凝而不調한 즉 血氣必爭하여 不妊한다.”

3) 張子和: 儒門事親 婦人無子篇, 培北, 旋風출판사, 1978, pp.9~10.

夫婦人年及二三十者, 雖無病而無子, 經血如常, 或經血不調, 乃陰不升陽不降之故也.

“무릇 여성이 나이가 결혼한지 二三十年이된 사람이 疾病은 없는데도 子息이 없는 境遇가 있다. 月經은 正常的이거나 或은 月經이 不調한데 이는 陰不升陽不降하기 때문이다.”

이에 著者는 不妊症의 問診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諸 文獻에 의거하여 檢討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및 考察

1. 月 經 歷

月經은 受精卵의 着床을 위해 增殖 分化되었던 子宮內膜이 脫落됨으로서 일어나는 性週期의 표지로서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機能的 相互關係의 總和로서 窮極의 子宮內膜, 卵管, 頸管 및 膾과 乳房을 포함하는 모든 標的器官에 대해 週期的인 變化를 일어켜 種族保存의 機能을 完成하게 하는 神秘스런 生命活動이다. 따라서 《景岳全書 婦人規》에서는 “不妊症을 診察하려고 하면 오직 月經의 樣相을 보아야 한다. 月經은 陰에 속하며 陰은 自然界의 달과 相應하므로 陰曆 1달 즉 28日을 週期로하여 規則的으로 있게 될 때 生理的인 것이다. 만약 病이 있게

되면 月經週期가 빠르거나 혹은 늦어지게 되어 月經이 한달에 두번 있거나 두달에 한번 있게 되기도 하며, 月經이 없어지기도 하고 月經이 자주 있으면서 그치지 않기도 한다. 또한 月經痛이 있고 난 뒤에 月經이 있기도 하고 月經이 있고 난 뒤에 月經痛이 있기도 한다. 月經血의 樣相에 있어서는 淡色을 띠거나 黑色을 띠거나 紫色을 띠기도 하며, 작고 큰 血塊를 形成하기도 한다.”⁴⁾하여 不妊症에 있어서는 이러한 月經歷이 重要시 되어야 한다고 說明하였다. 그러므로 不妊症을 辨證하는데 있어서 月經歷은 一次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⁵⁾ 月經症狀은 初經年齡, 月經間隔, 出血期間, 出血量, 月經血의 樣相, 月經痛의 有無, 月經間 出血 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月經週期가 길며 月經量이 적고 色淡하며 심한 경우 無月經이 되기도 하는 境遇에는 주로 腎虛로 辨證되며,⁶⁾ 腎虛로 辨證되는 것은 인체의 성장 발육 및 성기능 활동의 저하를 의미한다. 한편 서양의학에서는 사춘기가 지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임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gonadotropin이

4) 張景岳：景岳全書 婦人規，廣東，廣東科技出版社，1984，p.320.

婦人所重在血，血能構精，胎孕乃成。欲察其病，惟于經候見之；欲治其病，惟于陰分調之，蓋經即血也，血即陰也，陰以應月，故月月如期，此其常也。及其爲病，則有或先，或後者；有一月兩至者；有兩月一至者；有枯絕不通者；有頻來不止者；有先痛而後行者；有先行而後痛者；有淡色，黑色，紫色者；有瘀而爲條，爲片者。

5) 大韓產婦人科學會：婦人科學，서울，칼빈書籍，1991，pp. 56~74.

6) 1) 羅元愷：中醫婦科學，廣州，知音出版社，1990，pp.392~393.

2) 蕭 損：女科經綸 嗣育門，江蘇，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6，p.58.

婦人無子屬衝任不足腎氣虛

* 聖濟總錄曰：婦人所以無子，由衝任不足，腎氣虛寒故也。

* 內經曰：謂 女子二七，天癸至，任脈通，太衝脈盛，陰陽和，故能有子。若衝任不足，腎氣虛寒，不能系胞，故能無子；亦有本于夫病婦灰者，當原所因調之。

“婦人이 子息이 없는 것은 衝任不足，腎氣虛해서 이다.

聖濟總錄曰，婦人이 子息이 없는 것은 衝任不足，腎氣虛寒에서 緣由한다. 內經曰，女子 十四歲에 天癸至，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여 陰陽이 和合하니 妊娠할 수 있다. 만약 衝任不足하고 腎氣虛寒하면 不能系胞하여 無子한다. 그러므로 夫病과 婦病은 마땅히 原因을 알아 調和롭게 해야한다.”

정상으로 분비된다고 하며, 월경주기가 매달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위하여는 시상하부에서 GnRH를 생성 분비하여야 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GnRH에 반응하여 FSH와 LH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 만큼 생성 분비하여야 하며, 난소에서는 FSH와 LH에 반응하여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및 인히빈 등을 생성 분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경이 주기성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및 난소가 서로 틱니바퀴 처럼 물려서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관계를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기능실조는 배란장애를 가져오기 쉬우며, 이를 김⁷⁾은 신허로 변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無排卵, 부적절한 黃體, 低 에스트로젠 生産을 동반한 無月經 등으로 분류되는 排卵要因은 腎虛와 많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⁸⁾

月經週期가 不規則적이고 月經痛이 있으며 月經血에 塊狀이 있고, 月經前에 乳房痛이 있는 경우에는 肝鬱로 辨證된다.⁹⁾ 이 때에는

7) 金維新：不妊症의 診斷與中醫治療, 북경, 과학출판사, 1992, p.126.

8) 羅元愷：中醫婦科學, 廣州, 知音出版社, 1990, pp.392.

9) 1) 羅元愷：中醫婦科學, 廣州, 知音出版社, 1990, pp.392~395.

2) 嚴用和：濟生方 無子論,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 卷9 p.83

婦人氣盛于血, 所以無子, 宜抑氣散, 蓋香附子乃婦人之仙藥也, 不可謂其耗眞氣而勿服. 婦人血弱, 子臟風冷凝滯, 令人少子, 宜紫石英圓.

內經云：百病皆生于氣, 經有所謂七氣, 有所謂九氣, 喜怒憂思悲恐者 七氣也. 七情之外, 益之以寒熱二證而爲九氣也. 氣之爲病, 男子婦人皆有之. 惟婦人血氣, 爲患尤甚. 蓋人身血隨氣行, 氣一壅滯, 則血與氣併, 或月事不調, 心腹作痛, 或月事將行, 預先作痛, 或月事已行, 淋瀝不斷, 心腹作痛

“婦인이 氣가 血보다 盛하면 無子하는데 마땅이 抑氣散을 服用한다. 대개 香附子는 婦人의 仙藥인데 眞氣를 消耗하므로 함부로 服用하지 않는 것이 좋다. 婦人이 血弱하여 子宮에 風冷이 凝滯하여 少子할때는 마땅이 紫石英圓을 服用한다.

內經云：百病은 모두 氣에서 생기는데 七氣도 있고, 九氣도 있다. 喜怒憂思悲恐은 七氣이고, 七情에다 寒熱을 더하여 九氣가 된다. 氣가 病이되는데, 男女모두 해당된다. 오직 婦人에게는 血氣로 인한 疾患이 더욱 많다. 대개 人體의 血은 氣를 따라 움직이는데 氣가 壅滯된 즉 血도 凝滯되어 月事不調하여 心腹作痛하거나, 或은 月事가 오기전 먼저 痛症이 있고, 或月事가 行하여져도 그치지 않으면서 心腹作痛한다.

... 중략 ...

或 疇가가 되고 肌肉이 야위어 妊娠하지 못한다.”

3) 萬全：廣嗣紀要, 寡慾篇,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82, 卷9 pp.86~87.

古人男子三十而后娶, 女子二十而后嫁, 正如褚氏論, 恐傷其精血也. 故求子之道, 男子貴清心寡慾, 所以養其精, 女子貴平心定意, 所以養其血. 蓋男子之形樂者, 氣必盈, 志樂者, 神必蕩, 不知安調則神易散, 不知全形則盈易虧, 故其精常不足, 不能至于溢而瀉也. 此男子所以貴清心寡慾, 養其精也. 女子之性偏急而難容, 女子之情, 媚悅而易感, 難容則多怒而氣逆, 易感則多交而瀝枯, 氣逆不行, 血少不來, 則月事不以時也. 此女子所以貴平心定意, 養其血也

“古人은 男子는 三十歲가 지나 장가들고 女子는 二十歲지나 시집가라고 「正如褚氏論」에서 말하는데 이는 精血을 傷할까봐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다.

故로 求子之道는 男子는 清心寡慾하여 精을 養하는 것이 重하며, 女子는 平心定意하여 血을 養하는 것이 重要하다.

... 중략 ...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境遇를 考慮해 볼 수 있는데, 첫째 月經前의 下腹痛과 乳房痛 등이 排卵期에 일어날 경우는 普遍的으로 排卵自體에는 별 다른 異常이 없는 境遇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배란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불임증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¹⁰⁾은 卵管 要因으로 인한 불임증,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불임증, 다낭성 난소증 합증으로 인한 불임증, 고 프로락틴으로 인한 불임증 등의 경우를 肝鬱證으로 辨證하고

있다. 둘째로는 心理的인 不安靜이나 精神的인 刺戟으로 인하여 中樞神經系에 影響을 줌으로 인하여 二次的으로 排卵에 障礙를 招來하는 境遇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김¹¹⁾은 배란장애에 疏肝法을 활용하고 있다.

月經間隔이 길고 月經量이 적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無月經이 되기도하며 帶下의 量이 많은 경우에 痰濕으로 辨證하며,¹²⁾ 何 등¹³⁾에 의하면 이는 內分泌 紊亂으로 인한 不妊症과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분비와 관

女子之性은 偏急하여 難容하고 女子之情은 媚悅하고 易感한데 難容하므로 氣逆上하고 易感하므로 多交而瀝枯하므로 氣逆不行하고 血少不榮한 즉 月事不調한다. 따라서 女子는 平心定意하여 養其血하라.”

4) 傅青主: 傅青主女科 嫉妬不孕,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105

婦人有懷抱素惡, 不能生子者, 人以爲天心厭之也. 誰知是肝氣鬱結乎?

“평소 惡을 懷抱한 婦인이 不妊하는 것은 사람들이 天心이 厭之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肝氣鬱結때문인 줄 누가 알겠는가?”

5) 葉天士: 葉天士女科 婦人氣鬱不孕,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349

婦人思鬱過度, 致傷心脾衝任之源, 血氣日枯, 漸至經脈不調, 何以成胎.

“생각을 過度하게 하는 婦인은 心脾衝任之源을 傷하게 하여 血氣가 나날이 말라들어 점점 經脈이 不調하는데 어찌 妊娠이 되겠는가.”

10) 金維新: 不妊症의 診斷與中醫治療, 北京, 科學出版社, 1992, pp.133,167,175,193

11) 金維新: 不妊症의 診斷與中醫治療, 北京, 科學出版社, 1992, p.126

12) 1) 羅元愷: 中醫婦科學, 廣州, 知音出版社, 1990, pp.395~396

2)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2, 下篇 券21 pp.763~771

〈子嗣篇〉若是肥盛婦人, 稟受甚厚, 恣于酒食, 經水不調, 不能成胎, 謂之軀脂滿溢, 閉塞子宮, 宜行濕燥痰. 若是怯瘦性急之人, 經水不調, 不能成胎, 謂之宮乾澁, 無血不能攝受精氣, 宜涼血降火.

“肥盛婦인의 경우는 평소 肥濕한 사람이 酒食을 마음대로 먹어 經水不調하여 妊娠할 수 없는데 軀脂가 가득하여 子宮을 閉塞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行濕燥痰해야 한다. 만약 怯瘦性急之人이 經水不調하여도 妊娠할 수 없는데 子宮이 乾澁하여 피가 모자라 精氣를 받지 못하므로 마땅히 涼血降火해야 한다.”

3) 傅青主: 傅青主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p.102~109

〈種子門〉肥胖不孕

婦人有身體肥胖, 痰涎甚多, 不能受孕者, 人以爲氣虛之故. 誰知是濕盛之故乎?

“身體肥滿하여 痰涎甚多한 婦인이 不妊하는 것은 사람들이 氣虛때문이라 하는데 濕盛때문인 줄 누가 알겠는가?”

4) 葉天士: 葉天士女科,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348

〈求嗣門〉婦人形肥不孕

痰氣盛者, 體則肥, 肥則下體過半, 子宮縮入, 難以受精, 即或男莖長健, 鼓勇而戰, 精直射入, 而濕由膀胱, 必有泛濫之患.

“痰氣가 盛한 婦인의 體는 肥濕한데 肥濕한 즉 下體過半하여 子宮縮入, 難以受精할 수 없는 境遇는 男莖이 힘이 있어 精直射入해도 膀胱에 濕이 많아 범람하므로 不妊이 된다.”

13) 何嘉琳: 痰濕不孕辨治, 上海, 上海中醫藥雜誌 1991年 第8期

런한 불임증으로는 갑상선 질환과 당뇨병 등이 있으며, 한편 다낭성 난소 종합증의 경우에는 월경간격이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월경이 되기도 하며, 부정 자궁출혈이 있기도 하고, 신체에 털이 많고, 비만하며, 불임증을 호소하는 등의 자각증을 가진다. 따라서 내분비 문란으로 인한 불임증이란 여성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를 통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月經間隔이 비교적 길며 月經量은 不規則의이며 月經色이 紫色이며 塊狀을 띠고 月經痛이 수반되는 등의 症狀이 있을 때는 血瘀로 辨證된다.¹⁴⁾ 이는 전체 不妊의 약 20%에 해당하는 卵管 및 骨盤腔 要因인 骨盤腔의 炎症性 疾患, 腹膜의 感染, 子宮內膜炎, 腹膜炎 등과, 子宮體部 要因인 子宮筋腫, 子宮癒着, 폴립 등¹⁵⁾과 많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程 등¹⁶⁾은 이러한 辨證을 基本으로 하여 子宮內膜炎에 의한 41名의 不妊症 患者를 治療한 臨床統計를 제시하고 있으며, 李 등¹⁷⁾도 이와 유사한 報告를 하고 있다.

이와같이 月經歷은 女性不妊症에 있어 가장 基本이 되는 判斷 基準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일정한 週期和 量의 多少, 月經血의 樣相 및 月經과 함께 수반되는 症狀 등을 중심으로 하여 不妊症을 辨證할 수 있다.

그러나 張子和에 의하면 “女性 不妊症에 月經異常이 없는 境遇도 있다.”¹⁸⁾ 고 이미 論述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月經歷이 不妊患者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問診의 한 方法으로 매우 重要하지만 절대시 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좀 더 多角的인 檢査 方法도 活用할 必要가 있다.

2. 不妊女性의 年齡과 不妊期間

月經은 腎氣, 天癸, 衝任, 臟腑, 氣血의 相互作用으로 形成되며, 女性의 生殖能力에 있어 基本이 된다. 年齡과 關聯한 女性의 生殖能力에 대하여 《素問 上古天真論》에서는 女性의 生理的 週期에서 “35歲에는 陽明脈이 衰하고, 顏色이 검게되기 시작하며, 毛髮이 빠지기 시작한다.”¹⁹⁾ 고 하였는데, 陽明脈은 “衝脈附麗於陽明”이라 하여 衝脈의 根源이 된다 하였으며, 《景岳全書 婦人規 經脈之本》에서 “月經의 根本은 陰血이므로 모든 臟器가 關聯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臟腑의 血은 모두

14) 1) 羅元愷：中醫婦科學，廣州，知音出版社，1990，p.396

2) 吳 謙：醫宗金鑑 婦科心法要訣，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1，pp.123~124
〈婦人不孕之故〉

不子之故傷衝任，經不調 帶下 崩漏，或因積血 胞寒熱，痰飲脂膜病。

“婦人 不妊의 原因은 傷衝任하여 經不調，帶下，崩漏，瘀血，胞寒熱，痰飲，脂膜病 等 이다”

15) 醫學教育研修院編：家庭醫學，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1987，p.537.

16) 程 萍：辨證治療子宮內膜異位症41例，江西中醫藥，1991年，第22卷 第5期，pp.21~24.

17) 李祥云：補腎祛瘀治療子宮內膜異位症74例，上海中醫藥雜誌，1991年 第7期，pp.204~21.

18) 張子和：儒門事親，台北，旅風出版社，1978，卷5 pp.9~10.

〈婦人無子篇〉夫婦人年及二三十者，雖無病而無子，經血如常，或經血不調

19) 洪元植：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p.11.

女子七歲 腎氣盛，齒更髮長。二七 天癸至，任脈通，太衝脈盛，月事而時下，故有子。三七 腎氣平均，故眞牙生而長極。四七 筋骨堅，髮長極，身體盛壯。五七 陽明脈衰，面始焦，髮始墜。六七 三陽脈衰于上，面皆焦，髮始白。七七 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

衝脈으로 歸結되므로 衝脈은 五臟六腑의 血海가 되므로 內經에서 太衝脈이 旺盛하면 月經이 正常時期에 맞추어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現狀으로 미루어 보아 衝脈이 月經의 根本이 된다.”²⁰⁾고 하였다. 따라서 陽明脈의 衰弱은 二次的으로 衝脈의 機能衰弱을 惹起하므로써 女性의 生殖能力에 影響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女性의 年齡에 따른 生殖能力의 偏差는 不妊症 患者에 있어서 豫候判斷의 根據과 治療方針에 많은 影響을 줄 수 있다.

이와 關連한 具體的인 統計를 보면 Guttmacher의 不妊率 調查에서 16~20歲 女性에서는 不妊率이 4.5% 이었으며, 30~40歲 女性에서는 31.8% 이었고, 40歲 以後의 女性에서는 70% 이었다. 45歲 以後 妊娠되는 것은 매우 드물며 報告된 最高령 妊娠은 52歲 이었다. 따라서 年齡이 많아짐에 따라 不妊率이 높으며, 특히 張 등²¹⁾에 의하면 35歲 이후부터 임신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張 등²²⁾에 의하면 韓方治療에 의한 女性 不妊症의 治療率에서 25歲~30歲에는 59.81% 이던 것이, 31~42歲에서는 23.40%로 年齡이 많을수록 治療效果가 떨어지고 있었

으며, 不妊期間이 1~2년 사이에서는 治療率이 65.66%이었으며, 3년 이상의 경우에는 28.87%로 不妊期間이 길수록 治療率이 低調하다고 報告하였다. 또 張²³⁾의 다른 報告에 의하면 女性不妊症의 治療率이 女性의 年齡이 25~30歲에서는 40% 정도였으며, 35~40歲에서는 治療率 10%의 低調한 結果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不妊患者에 있어서 年齡은 豫候判斷에 있어 매우 重要하므로 不妊症 患者를 相對로 한 問診에서는 반드시 參考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不妊患者는 35歲 이전에 積極的인 治療가 必要할 것으로 보이며, 不妊期間이 길수록 治療率도 떨어지므로 早期에 積極的인 治療가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3. 醫學的 病歷

《千金方》에서는 “虛羸가 女性 不妊症의 原因이 된다.”²⁴⁾ 하였는데, 이는 甚한 營養障礙가 不妊의 한 原因이 된다는 것과 關聯性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婦人良方大全》에 의하면 帶下가 不妊의 原因疾患으로 說明되고 있는데²⁵⁾ 帶下는 주로

20) 張景岳：景岳全書 婦人規，廣東，廣東科技出版社，1984，p.25

然經本陰血，何臟無之？惟臟腑之血，皆歸衝脈，而衝爲五臟六腑之血海。故經言太衝脈盛，則月事以時下，此可見衝脈爲月經之本也。

21) 장운석, 이진용, 문신용, 김정구, 최승헌, 임용택：불임증환자의 통계적 고찰, 서울대학교병원 불임상담실 1872예의 분석, 대한불임학회지, 1985년 12월：p.47.

22) 張麗蓉 外：不孕症 308例 臨床療效分析, 江蘇中醫, 1989年 第 5 期, pp. 10~ 12.

23) 張麗蓉：中西醫結合治療 不孕症 與 不育症, 天津科學出版社, 1984, p.21.

24) 孫思邈：千金要方,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p.16~19.

凡人無子，當爲夫妻俱有五勞七傷，虛羸百病所致 故有絕嗣之患。

25) 陳自明：婦人良方大全, 北京, 文光圖書有限公司, 券9 pp.3~4.

〈無子論篇〉

若夫婦疾病 必須藥餌，然婦人無子，或勞傷氣血，或月經閉澀，或崩漏帶下 “夫婦疾病은 藥餌가 必須이다. 婦人 不妊의 原因은 勞傷氣血이나, 月經閉澀, 崩漏帶下이다.”

女性 生殖器의 炎症性 疾患으로 인한 것으로 그 代表的인 것이 膇炎이다. 이러한 膇炎 역시 不妊의 한 原因이 될 수 있다.

《景岳全書 婦人規》에서는 血癥, 月水不通 등이 不妊症을 誘發하는 疾患으로 說明하고 있는데,²⁶⁾ 江 霞²⁷⁾은 無月經으로 인한 2例의 不妊症 患者에서 超音波로 檢診한 結果 卵巢囊腫으로 診斷되었고, 이를 韓醫學의으로는 無月經, 癥瘕로 인한 不妊症으로 보아 辨證論治한 臨床報告가 있다. 다만 癥瘕는 卵巢囊腫 뿐 아니라 子宮筋腫, 子宮內膜症 등을 광범위하게 包括하고 있으며, 無月經 역시 子宮內膜 癒着으로도 發生할 수 있으나 中樞神經系의 異常 등²⁸⁾으로도 많이 發生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좀더 具體的인 接近 方法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傳青主女科》에서는 骨蒸夜熱不孕이라 하여 夜熱, 遍體火焦, 口乾舌燥, 咳嗽吐沫 등의

症狀이 있을 때 妊娠이 어렵다고 하였다.²⁹⁾ 한편 骨盤結核은 女性不妊, 月經不順, 慢性的 下腹部 疼痛, 甚한 骨盤內 癒着 등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骨盤結核의 一次 感染部位는 肺이고 血行性으로 전파된다. 自覺症狀으로는 오후에 특히 微熱이 있으면서 貧血과 頻脈의 症狀을 보일 때가 많다.³⁰⁾ 따라서 骨蒸夜熱은 骨盤結核으로 인한 女性 不妊症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으로 보아 韓醫學에서는 癥瘕, 骨蒸夜熱, 無月經, 帶下 등이 不妊과 관련을 가지는 疾患으로 說明되고 있다.

4. 社 會 歷

萬 等に 의하면 “女性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뜻한 바를 잘 지켜나감으로서 女性生理가 원활하다”하였다.³¹⁾

이로서 女性의 生理는 다른 어느 分野보다

26) 張景岳：景岳全書，婦人規，廣東，廣東科技出版社，1984，p.320.

〈女病二〉有血癥，氣痞，子臟不收，月水不通者。凡此皆眞陰之病也。眞陰既病，則陰血不足者，不能育胎；陰氣不足者不能攝胎。凡此攝育之權，總在命門。正以命門爲衝任之血海，而胎以血爲主，血不自生，而又以氣爲主，是皆眞陰之謂也。所以凡補命門則或氣或血，皆可謂之補陰，而補陰之法，即培根固本之道也。

“血癥，氣痞，子臟不收로 月經不通하는데 이 모든 것은 眞陰의 病이다. 眞陰이 이미 병들면 陰血不足하여 育胎할 수 없으며 陰氣不足하면 攝胎할 수 없게된다. 대저 攝胎育胎의 권한은 모두 命門에 있는데 命門은 衝任之血海이다. 胎는 血爲主로 血이 스스로 生하지 않으면 氣로서 主가 되니 이것은 모두 眞陰을 말한다. 소위 命門을 補하는 것은 氣나 血을 補하는 것인데 즉 補陰하는 것이다. 補陰之法은 培根 固本之道이다.”

27) 江 霞：趣保卿治療閉經不孕二則，浙江中醫學院學報 1991年 第15卷 第5期，p.27.

28) 大韓產婦人科學會：婦人科學，서울，칼빈書籍，1991.

29) 傳青主：傳青主女科，서울，大星文化社，1984，p.107.

婦人有骨蒸夜熱，遍體火焦，口乾，舌燥，咳嗽，吐沫，雖於生子者，人以爲陰虛火動也。誰知是骨髓內熱乎？“骨蒸夜熱하여 몸이 타고 口乾，舌燥，咳嗽，吐沫하는 婦人은 妊娠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陰虛火動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骨髓內熱 때문인줄 누가 알겠는가?”

30) 大韓產婦人科學會：婦人科學，서울，칼빈書籍，1991，pp.534~536.

31) 萬 全：婦人秘科，湖北人民出版社，1983，p.15

種子者，女貴平心定氣，蓋女子以身事人，而性多躁，以色悅人，而性多忌，稍不如意，即優思怨怒矣也。憂則氣結，思則氣鬱，怨則氣阻，怒則氣上，血隨氣行，氣逆血亦逆，此平心定氣，爲女子第一緊要也。

“子息을 가지고자 하는 女子는 平心定氣해야 한다. 대개 女子는 몸으로써 男便을 대하니 性이 躁急하고, 美色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니 꺼릴 것이 많아 뜻대로 되지 않는 즉 憂思怨怒의 感情이 생긴다. 憂則氣結하고, 思則氣鬱하고, 怨則氣阻하고, 怒則氣上한다. 血은 氣를 따라 行하는데 氣逆即血逆 하므로 平心定氣하는 것이 女子에게 있어서 제일 重要하다.”

마음(psyche)과 몸(soma)사이에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女性 生殖器官은 특히 中樞神經~시상하부~뇌하수체~卵巢 축으로 이어지는 内分泌的 側面에서 感情的 또는 情緒的 葛藤 등에 의해 매우 쉽게 反應하는데, 우리의 内分泌 器官은 自律的으로 기능을 발휘할 뿐만아니라 大腦의 高等中樞에 의하여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특히 女性不妊症과 生活環境에 의한 感情의 情緒的 葛藤과의 關聯性을 張은 《景岳全書 婦人規》에서 “產育은 血氣로 부터 시작되며, 血氣는 感情에 影響을 받게되니 感情이 원활치 못하면 衝任이 不充하여 妊娠을 할 수 없다.”³³⁾ 고 說明하고 있으며, 傅 등은 嫉妬 不妊에서 “婦人이 평소 싫어하는 바를 마음 속에 품게 되면 子息을 나올 수 없다. 이는 肝氣의 鬱結로 인한 것인데 肝機能이 鬱結되면 心腎의 脈이 반드시 鬱滯되며, 脾土의 氣도 閉塞시키게 된다. 이러한 氣의 閉塞은 任脈帶脈 등을 閉塞시켜 不妊症을 誘發한다.”³⁴⁾ 고 하였다. 따라서 女性 不妊症은 女性의 感情的 또는 情緒的 葛藤 등에 의해 影響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反應은 韓醫學의 肝機能을 中心으로 많이 說明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結 論

女性 不妊症 患者의 問診에 대해서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다.

1. 女性不妊患者에 있어서는 年齡의 考慮가 重要한데, 특히 陽明脈의 機能衰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35歲 以後에는 妊娠 治療率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月經歴은 不妊 女性을 診斷하는 가장 基礎的인 根據가 되는데, 특히 月經血의 樣相, 月經間隔, 出血期間, 出血量, 月經痛의 有無 등에 基準하여 辨證論治가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① 腎虛는 無排卵, 부적절한 黃體, 저에스트로젠 生産을 同伴한 無月經 등과 相關한 일련의 排卵 要因과 關聯이 깊을 것으로 보여진다.

② 肝鬱은 精神的인 要因 등으로 인한 排卵에 異常이 있는 境遇와 排卵에는 異常이 없는 境遇로 大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痰濕은 内分泌 紊亂으로 인한 不妊症과 關聯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④ 血瘀는 骨盤腔의 炎症性 疾患, 子宮 內膜症, 腹膜炎 등과 一련의 關聯을 가지는 卵管 및 骨盤腔 要因과 子宮筋腫, 子宮癒着,

32) 大韓產婦人科學會：婦人科學， 서울， 칼빈書籍， 1991， pp.272~273.

33) 張景岳：景岳全書 婦人規， 廣東， 廣東科技出版社， 1984， p.305.

〈畜妾篇〉 產育由于血氣， 血氣由于情懷， 情懷不暢則衝任不衡， 不衡則胎孕不受

34) 傅青主：傅青主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p.105~106.

〈嫉妬不孕篇〉 婦人有懷抱素惡， 不能生子者， 人以爲天心厭之也， 誰知是肝氣鬱結乎！ 婦人之有子也， 必然心脈流利而滑， 脾脈舒徐而和； 腎脈旺大而鼓指， 始稱喜脈。 未有三部脈鬱， 而能生子者也。 若三部脈鬱， 肝氣必因之而更鬱， 肝不鬱則心腎之脈， 必致鬱之極而莫解。 蓋子母相依， 鬱必不喜， 喜必不鬱也。 其鬱而不能成胎者， 以肝木不舒， 必下極脾土， 而致塞脾土之氣。 塞則腰膈之氣必不利。 腰膈之氣不利， 必不能通任脈而達帶脈， 則帶脈之氣亦塞矣。 帶脈之氣既塞， 則胞胎之門必閉， 精即到門， 亦不得其門而入矣， 其奈之何哉？

폴립 등 子宮體部 要因과 많은 關聯性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3. 醫學的 病歷으로는 瘧疾, 骨蒸夜熱, 無月經, 帶下 등이 不妊과 關聯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4. 女性의 社會歷과 關連한 自覺症狀은 주로 肝鬱로 辨證되어지며, 이는 中樞神經系의 機能障礙로 인한 不妊과 關聯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參 考 文 獻

1. 羅元愷：中醫婦科學，廣州，1990，知音出版社，pp.391~397
2. 大韓產婦人科學會：婦人科學，서울，칼빈書籍，1991，pp. 56~74, 272~273, 389~436, 534~536.
3. 萬 全：婦人秘科，湖北人民出版社，1983，p.15.
4. 萬 全：廣嗣紀要，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人民衛生出版社，1982，pp.86~87.
5. 傅青主：傅青主女科，서울，大星文化社，1984，pp.102~109.
6. 葉天士：葉天士女科，서울，大星文化社，1984，pp.331~351.
7. 蕭 損：女科經綸，江蘇，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6，pp.53~68.
8. 孫思邈：千金要方，서울，大成文化社，1984，券2 pp.16~19.
9. 宋炳基：韓方婦人科學，서울，杏林出版社，1984，pp.278~286.
10. 嚴用和：濟生方，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人民衛生出版社，券9,p.83.
11. 吳 謙：醫宗金鑑，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1，pp.123~125.
12. 醫學教育研修院編：家庭醫學，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1987，p.524.
13. 張景岳：景岳全書 婦人規，廣東，廣東科學出版社，1984，pp.297~324.
14. 張子和：儒門事親，台北，旅風出版社，1978，券5 pp.9~10.
15.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1982，下篇 券21 pp.763~771.
16. 陳自明：婦人良方大全，北京，文光圖書有限公司，券9 pp.3~4.
17. 許 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6，券10 pp.603~605.
18. 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p.11.
19. 江 震：浙江中醫學院學報，浙江，1991 第5期，券15 p.27.
20. 李祥云：上海中醫藥雜誌，上海，1991 第7期，pp.20~21.
21. 張麗蓉：中西醫 結合治療 不孕症 與 不育症，天津科學出版社，1984 p.18.
22. 張麗蓉 外：不孕症 308例 臨床療效 分析，江蘇中醫，1989年 第5期，pp.10~12.
23. 程 萍：辨證治療子宮內膜異位症41例，江西中醫藥，1991年 第5期，券22 pp.21~24.
24. 何嘉琳：海中醫藥雜誌，上海，1991 第8期，pp.15~17.